

홈 스쿨링의 현장

- 송경부 목사 / 2003. 3. 18

진정한 교육의 필요성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과 지식의 근원이며, 성경은 모든 삶과 지식에 의한 교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시켜야 할 일차적인 기관이 교회이며 가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홈스쿨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나라는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아이는 이미 200만 명이 넘고 있으며, 매년 7-15%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70년 초기엔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부모가 자녀를 세속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하였지만 이것이 합법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 역시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이후 1980년대를 거치면서 홈스쿨링은 하나의 교육운동이자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어, 최근에는 미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 교육법36조의 '의무취학 연령의 아동을 둔 학부모는, 그를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의 나이, 적성 및 능력에 알맞은 효율적인 전일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은 학교'취학'이 의무가 아니라 '교육'이 의무임을 명시함으로써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의 교육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홈스쿨링 실제 사례

아직 한국은 홈스쿨링을 위한 환경조성이 매우 미약하지만, 최근 홈스쿨링을 시작하는 가정 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5년 2월 대전 유성에서 시작된 '새로운 학교'의 시도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제도권 교육의 타성과 한계를 넘어 자발성, 주체성, 협동성과 창의성,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한 감성 등을 길러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체험위주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이후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꾸준히 홈스쿨링을 해온 가정들이 있었지만, 1999년 1월부터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홈스쿨링을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모임인 '가정학교모임'엔 현재 1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최근 미국 밥존스대학교와 서울여대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에 대한 세미나가 매년 개최되어 홈스쿨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기독교학문연구소 및 기독교대안학교협의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 서울산업대 건설공학부와 서울대 종교학과에 각각 나란히 입학한 노재경(20), 현성(19. 여) 남매 역시 홈스쿨링을 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 남매가 홈스쿨링을 하게 된 것은 부모인 노성대(51. 상업. 경기 광명시 하안2동)씨 부부의 교육관 때문이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들은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기보다 늘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교육이 아이들 인성에 좋지 않을 것 같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2000년2월15일자 참고>

또한 최근 자녀를 위한 진정한 교육의 회복을 위해 퇴촌에서는 김남영 교수(광운대 교수)

부부는 4명의 자녀를 위한 홈스쿨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체적으로 학교 이름을 미소랑 홈스쿨링으로 정하였으며, 수업중에는 자녀들이 교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뿐만아니라 산본 참사랑교회 김 형욱 목사님도 직접 홈스쿨링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김형욱, 정덕용 부부 역시 두 자녀에게 홈스쿨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에게 청지기로 위탁했기에 부모가 직접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외 많은 가정이 이를 실천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는 단순히 학교교육에서만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참된 신앙교육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 홈스쿨링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현실 속에서 기존 학교를 그만 두고 홈스쿨링으로 전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입니다. 홈스쿨링은 우선 부모의 확실한 소명이 필요하며 그 소명이란 자녀의 철저한 신앙교육에 기인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에서 성경과목부터 시작하여 홈스쿨링을 부분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소명과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전일반으로 전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앙대 김승욱 교수 가정을 중심으로 3명의 여중2년생 아이들이 전일반 홈스쿨링으로 전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2일에 개강예배를 드림과 함께 성경,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음악 수업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홈스쿨링 ESL반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부모들도 처음 두려움과는 달리 매우 즐겁고 재미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20여명의 홈스쿨링 자녀들이 태권도 교실과 관현악 수업을 국군중앙교회에서 부모들과 함께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 등 정보 통신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 홈스쿨링을 위한 교육자료, 교육방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기가 쉬워져 학교 교육과의 격차를 메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홈스쿨링 인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여러 가지 기독교 홈스쿨링 교재들이 국내에도 소개되며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커리큘럼들은 미국 내에서 학력을 인정받고 있기에 이러한 교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인면 뿐만아니라 언어적 학문적으로 잘 훈련받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큰 비전과 소망을 갖고 원하는 대학에서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 또한 더욱 소망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의와 나라 역시 확장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우리의 닫혔던 마음들도 활짝 열려 여러 다양한 가능성 있는 방법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시도해 본다면 더욱 알차고 유익한 기독교 신앙교육의 확실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